개교 93주년 대전고, 다시 뭉치는 대능인!

순결 진실 용기

大稜

1

제153호 2010년 11월 30일(화)

발행인 : 이종훈 (44회)
편집인 : 전종구 (52회)
편집장 : 김영만 (57회)
발행처 :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대전시 중구 대흥동 422(대전고 총동창회관 2층)
TEL(042)257-0005 FAX(042)257-0518
홈페이지 : www.daego.kr
E-mail : obdk@daego.kr

大田高等學校總同窓會報

백호해 '아듀' "송년의 밤 함께 합시다"

총동창회 17일 리베라호텔 재경동창회 14일 프라자호텔

영예의 대능인상 7명 확정

다사다난했던 백호해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교 자율형 공립고 지정 · 교사재건축, 동창회관 리모델링 등 적지않은 일들이 스쳐갔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2010 송년의 밤 행사에 동문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사진은 지난해 열린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 모습)

올해 영예의 대능인상은 김동극(44회) 극동GNS 회장, 최원길(47회)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 사장, 홍성표(52회)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인복(53회) 대법관, 한만희(53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만철(54회)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유재일(55회) 국회도서관장등 7명에게 돌아갔다. ▶ 관련기사 2면 · 9면

총동창회 대능인상 위원회(위원장 송화순 수석부회장, 44회)는 11월19일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와 12월 14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에서 각각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중 김동극 회장은 지난 1979년 (주)극동보석을 설립, 운영하는등 30여년간 한국 보석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원길 사장은 '2009 매경이코노미' 올해의 CEO에 선정되는등 36년동안 조선업의 대부로서 명성이 자자하다.

홍성표 위원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위한 각종 운영제도와 시스템을 고객위주로 개선하는등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

이인복 대법관은 사법고시(21회)에 합격, 판사로 임명된 후 대전고법 ·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등을 거치면서 소신있고 정평있는 판결로 법조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만희 청장은 행시(23회) 출신으로 건설교통부 혁신정책조정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주택 토지실장을 거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선후배 공무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서만철 총장은 공주대에서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리불리탐사학회장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장등을 역임하는등 한국 지질학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유재일 관장은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한국정당학회장을 맡는등 정치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총동창회는 오는 12월 17일 대전 유성소재 리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10 송년의 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기념식과 만찬등 1 · 2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만남의 장을 비롯해 식전행사로 영상물 상영과 동문초청 공연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자율형 공립고 지정, 학교 교사 재건축, 동창회관 리모델링등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모임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알림 12월 17일 유성리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리는 '2010 송년의 밤 행사'에 금품 등을 협찬해 주실 동문을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대전고총동창회 (042)257-0005

≪행사 분담금 및 협찬금 납부 계좌≫

하나은행	628-410313-00105	예금주 : 대전고동창회
국민은행	721801-01-572075	예금주 : 대전고동창회
농 협	301-0059-3317-51	예금주 : 대전고동창회

지면안내

총동창회소식	2~3면	칼 럼	4면	동문모임	5면
대능가족등반대회	6~7면	모교소식	8면	재경동창회	9면
기 획	10면	새의자·화제의인물	11면	단체·기별소식	12~14면

신재민 (63회) 동문

찬란한 '100년 대고' 앞장… 지역 · 국가발전 산파역 다짐

이종훈(44회) 총동창회장

청명한 가을하늘에 오색단풍의 산야를 감상하는 낭만도 잠시, 빨갛게 물든 뜰 앞의 감나무는 한해의 결실을 잊은 듯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채 겨울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금융위기, 환율불안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선 모교와 총동창회는 지난 10월 공주산림박물관에서 개최한 대능가족등반대회가 동문 모두의 가슴속에 명문 대고의 부흥과,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단합한다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61회 동문들이 뜻을 모아 총동창회에 모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 동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모교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명문 대고 부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동문들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선후배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으로 자율형 공립고에 지정된 우리는 이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동창회는 이같은 변화에 맞춰 발전기금 모금등 모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동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최근 총동창회는 동문들이 자주 모일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각종 동호회가 이용할수있는 공간을 비롯해 젊은 동문들이 정보교환과 친교를 다질수 있는 인터넷 카페, 오는 2017년 개교 100주년을 대비한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 대능지 편집실 등을 리모델링해 동문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잘되려면 동문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동창회의 힘과 역량이 커집니다.

모교 100주년이 7년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100주년 준비를 위한 씨앗인 '일백백운동' 에 모든 동문들이 헌신적으로 참여, 100년 대고의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전국 각지에서 불철주야 맹활약하고 있는 동문 여러분! 모쪼록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빕니다.

한 동문 한 동문의 힘이 총동창회로 모아져 지역은 물론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랍합니다.

부디 이번 총동창회 송년의 밤 모임에 동문 모두가 참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덕담을 건네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문 모두 건강과 함께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예의 대능인상 수상자

김동극(44회)회장

김동극 회장은 30여년동안 쌓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후학양성을 위해 극동보석연구소와 보석감정교육기관 GIA KOREA을 설립, 관련 학계 및 사업분야에 공헌을 한데다

실무경험 30년 '보석통'

미국과 유럽까지 소비시장을 확장하는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주춧돌을 놓았다. 또 지난해는 중국칭다오의 한인회를 통합, 재청도한국인회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 · 중 양국 우호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원길(47회)사장

최원길 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출신으로 1974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후 조선사업본부 핵심부서를 두루 거쳤다. 기술영업과 설계. 고객지원, 품질관리,업무혁신등

국내 선박관련 '최고' 명성

국내 선박관련 분야 최고 재원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최 사장은 특히 세계 최대규모 전자제어엔진을 제작,생산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다.

홍성표(52회)위원장

홍성표 위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과 대전대 법학대학원에서 각각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 지점장과 본부장,

시스템등 고객위주 개선

상무, 전무에 이어 SG신용정보(주)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객들의 애로및 요구사항을 수렴해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위주로 대폭 개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이인복(53회)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후 줄곧 소신있고 합리적인 법관으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다. 이 대법관은 이에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재판실무 능통" 호평

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원만하고 탁월한 재판 진행으로 지난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서울지역 전체법관 평가결과 우수법관 15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만희(53회)청장

한만희 청장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재직시 현 정부의 친서민 핵심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을 탄생시키는 산파역할을 했다.

보금자리 주택 산파역

주택과 토지,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영국 버밍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미국 주택도시부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하는등 국제적인 감각도 두루 겸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서만철(54회)총장

서만철 총장은 미 루이지애나주립대와 웨스턴 미시간대에서 각각 석 ·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공주대에서 자연대학장과 기획연구처 기획연구팀장을 지냈다. 평소 차분하

성품 온화… 리더십 뛰어나

고 온화한 성품으로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정평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충청남도 자체평가 위원등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공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유재일(55회)관장

유재일 관장은 정통 야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이사를 맡는등 정당정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특히 야당이 차지할수 있는 국회직중 최고위직인

세계일류 국회도서관 야심

국회도서관장(차관급)에 다수의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취임해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국회도서관을 세계 일류 의회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유 관장의 취임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63 · 64회 동창회 대능지 발행비 쾌척

이번 153회 대능지 발간비용은 63회(회장 서영교), 64회(회장 김강우, 재경회장 류진) 등 2개 동창회의 광고로 충당했습니다.

동문들의 소식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대능지에 광고를 게재해주신 63회, 64회 동창회에 감사드립니다.

대능지 발간비용은 지난 142호부터 각 기수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각 기 동창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금 전달 총동창회 모교지원금 전달식이 11월 24일 모교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종훈(44회) 총동창회장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계기로 학교 홍보 및 사전 준비를 위한 지원금 6000만원(사진 상)을, 김원명(49회) 동기회장이 졸업 40주년 기념 모교 발전 지원금으로 1000만원(중)을, 박천수(59회) 동기회장이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1500만원(하)을 각각 전달했다.

동창회관 새롭게 단장

1백주년 추진위 개설… 교류의 장 기대

동창회관이 새롭게 단장하고 동문맞이에 나섰다.

총동창회는 최근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금명 개관식과 함께 본격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보면 그동안 방치돼 있던 지하 1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회의실로 개조됐으며 종전 회의실이었던 3층은 10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 사무총장실, 편집실, 동호인모임 사무실로 새롭게 바뀌었다.

이중 10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회는 오는 2017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기획, 조직, 예산등 제반사항을 총괄하게 되며 동호인모임사무실은 컴퓨터(3대) 관련시설을 포함해 회의용 탁자(8인용) 2개등 각종 기자재를 비치, 동문들의 교류의 장으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전종구(52회) 총동창회사무총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최소 비용으로 공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데 이어 '꾀는 동문회'를 통한 동창회관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농구부 격려모임 가져 모교농구부후원회

모교농구부후원회(회장 성호엽,65회)는 지난 10월14일 둔산동 소재 터존뷔페에서 모교농구부원들과 만찬을 갖고 동문애를 다졌다.

이날 참석한 농구부원과 성호엽, 김진억, 박삼현, 구본홍, 최영협, 이태경, 김도연, 서순택(농구부 감독)등 20여명은 올 농구부의 선전에 대한 격려와 함께 새해 더 나은 성적을 올릴 것을 다짐했다.

모교 농구부는 올해 전국규모 대회에서 2차례 4강에 진출하는등 평년수준의 성적을 거뒀으며 현재 3학년(3명)은 성균관대와 한양대로 진학이 확정된 상태이다.

총동창회 홈페이지 가입 5000명 돌파

총동창회 홈페이지(www.daego.kr) 가입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

25일 총동창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총동창회 홈페이지 가입자는 모두 5014명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3만6000여 동문을 감안할시 20%를 밑도는 수치로 동문들의 자발적인 가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모교 재건축 공사·자율형 공립고 지정등을 계기로 '명문 대고' 부활의 첨병역을 맡고 있는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대한 동문들의 가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구마모토고교 개교110주년 기념행사 참관기

전종구(52회) 사무총장

모처럼 만의 나들이였다. 우리 학교 총동창회와 25년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 중,고교 동창회(약칭 강원회)로부터 당교 개교 110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에 참관단의 일원으로 초청받아 일본행에 올랐던 것. 일정은 10월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4일로, 당교의 기념행사 참관과 맞물려 일정 내내 바쁜 하루의 연속이었다. 비록 '짧지만 유익했던' 3박4일 일정의 편린들을 모아본다.

□ 대전고 총동창회 환영회(전야제)

당교 개교 11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대전고 총동창회 환영회는 서브행사 격. 주 행사에 앞서 10월 29일 전야제로 치러졌다. 이 자리에는 강원회측 인사로 요네미츠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총동창회측은 이종훈회장을 위시해 참관단 15명 전원이 참석, 양교 동창회간의 오랜 우정을 확인하고, 내일의 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원회측은 이날 지난 1985년 첫 인연을 맺은 이후 25년간 가교 역할을 해온 박종윤 고문을 비롯해 이종훈 회장, 손종현 자문위원, 박웅범 부회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종훈회장은 답례로 백제금관(모형)을 축하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 구마모토 고교 개교110주년 기념행사

10월30일 구마모토 닛코호텔에서 개최된 당교 개교110주년 기념식에 모인 참석자수는 총1,200명(주최 측 공식집계). 메인 홀이 모자라 추가로 2개 홀을 더 빌려 뒤늦게 참석한 동문들을 따로 수용하는가하면 행사진행 요원들이 친히 동문표찰이 적힌 테이블까지 안내해주는 등 주최 측의 자상한 배려들이 도처에서 묻어났다.

또 이와는 별도로 그림전시회나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데 이어 행사당일엔 자선바자회를 열어 넥타이나 모자, 벨트 등 각종 기념품들을 판매하는데 모두들 열심이었다. 이날 팔린 넥타이(총 6종)만도 족히 500개를 넘는다는 관계자의 귀띔이다.

모교 교장에 대한 외경심은 우리네와 비슷한 편. 교장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모든 행사의 의전서열에서 앞세운다는 강원회 측 인사의 설명이다.

또한 동문 선후배간에는 엄격한 상하관계가 존재하는게 관례이며, 동문 개인이 얻은 사회적인 부나 명예는 동문간의 일체감이 우선일 뿐 뒷전으로 미뤄지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란다.

□ 골프 라운딩

부대행사로 이튿날인 10월31일 치러진 골프 이벤트에는 1백40여팀, 총 5백60명의 동문들이 참가했다. 규모도 엄청나거니와 이 행사를 위해 무려 2년 동안 준비했다는 주최측 설명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 그만큼 철저했던 준비과정을 잘 말해준다.

아무튼 우리 일행 12명도 3개조로 나뉘어 일본에서의 골프 라운딩에 참가하는 행운을 누렸으며, 모두들 만족해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귀로에 후쿠오카에 들러 '학문의 신'을 모신 〈다자이후텐만궁〉 입구 정문에서 참관단 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뒷줄 좌로부터 배정설·강건춘·박응진·박진순·이종훈·박종윤·정순석·송화순·박웅범·조봉연 동문, 앞줄 좌로부터 신현성·홍승원·전종구·이종국 동문(일행 중 손종현 동문은 개인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함)

'잘 짜여진 행사문화' 부러워

권오덕(41회) 동문 대전일보 편집국장 · 주필 역임

‘名門 大高’ 부활을 확신한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계기로 全동문 앞장서야

얼마 전 도하 각 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1급-3급)의 출신 고교별 분석 기사로서, 총 1500명 중 모교 출신이 44명으로 전국 수백 개 고교 중 당당 3위에 랭크된 내용이었다. 1위는 경기고로 61명, 2위는 경북고로 55명, 3위는 대전고로 전주고와 함께 44명이었다.

참으로 반가운 기사였다. 속된 말로 “‘썩어도 준치’라더니 아직은 대전고의 명성이 살아있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옛 격언도 생각났다. 지난 74년 서울 · 부산에 이어 79년 대전이 평준화 된지 어언 31년. 그동안 쌓아 올린 명문이란 이름은 점차 퇴색해 동문들을 안타깝게 했었다.

이름도 없던 학교들이 명문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동문들은 허탈해 했다. 90년대 초 둔산에 신도시가 생기자 위기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우수학생들이 대거 둔산 쪽으로 몰리면서 우수자원 고갈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확충 등 갖은 노력도 허사였다. 로또복권 식 학생선발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 줄기 서광이 비쳤다. 지난 8월 모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받아 올 12월부터 학생들을 자율로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간 2억 원을 지원 받고, 교장공모제와 교원 100% 초빙제, 교과별 이수단위의 50% 증감 운영 등 학교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구축돼 명문고 부활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됐다.

모교는 이미 훌륭한 기숙사와 도서관을 갖추었고, 새로운 신축교사를 수년 내에 완공키로 계획돼 있어 훌륭한 교장과 교사만 확보된다면 옛 영광을 찾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이미 시내 곳곳의 우수인재들이 명문 대전고의 깃발아래 모이고 있어 동문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名門 大高’ 부활에 뿌듯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까지 大田高는 수많은 국가인재를 배출해냈다. 정계, 관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금융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에 걸쳐 지역과 국가의 동량(棟梁)들을 양성해냄으로써 대한민국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몇해전 동창회보에 쓴 일이 있지만, 필자가 일간지 편집국장 시절 대전고 출신 편집국장 · 보도국장은 무려 8명에 달했다.

당시 검사장도 6-7명에 이르렀고, 90년대에 국책은행총재와 은행장을 역임한 동문은 10명이나 됐다. 이밖에 관계, 학계, 산업계, 문화계, 군부에도 수많은 동문들이 진을 치며 ‘名門 大高’를 과시해 황금기를 구가한 것이다. 40대 후반부터 정년 전의 50대 후반 동문들이 아직은 건재한 만큼 앞으로 10여년간은 버틸만하다.

문제는 10년 후다. 앞으로 10년 후에서부터 향후 20-30년간은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준화시책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공백은 영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모교가 자립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으니 그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이젠 전 동문들이 우수학생과 우수교사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동문 모두가 우수 중학생 한명씩 끌어오는 운동을 적극 벌여야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올해 취임한 이종훈 모교 총동창회장(44회)과 유의규 모교교장(49회)이 있어, 그들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총동창회와 모교가 거대한 부활계획을 세워 정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3만 6천여 동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필자는 퇴직한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대전고출신이란 자부심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부장, 편집국장, 기획이사, 논설실장, 주필을 거치며 신문사에서 38년간이나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대능 동산에서 심신을 닦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백수인 현재도 동문 선배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다.

필자의 모임 10개 중 5-6개가 41회 동기나 동문 선후배들로 이루어졌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들 모임을 살펴보면 41회동기모임으로 대전동창회모임과 절친한 친구 11명으로 구성된 전일회, 서울 · 대전 등산 애호가(6명 부부)들의 모임이 있다. 또 10년 전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선후배 5명으로 만든 ‘대전문화사랑방’이 있다.

그리고 4개 대학총장(충남대, 공주대, 대전대, 금오공대)동문들과 대전시부교육감, 전 총동창회 사무총장, 충남대 병원장, 충청하나은행 대표, 그리고 필자 등 9명이 정기적으로 만나 모교와 동문 얘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다. 이런 모임에서는 대개 동문들과 모교관련얘기가 나오게 마련이어서 동창의식 제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점차 퇴락하고 있는 모교를 살리려면 훌륭한 교장 · 교사영입과 동문들의 일치된 모교 사랑 및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70년대-90년대 대전고가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50년대-70년대에 한상봉, 박관수, 김낙중 등 훌륭한 교장과 여러 과목에 걸친 뛰어난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기에 가능했다.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장과 교사,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바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하루 빨리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막연한 계획은 안 된다. 대능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名門 大高’ 부활에 앞장선다면 世世年年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교 100주년에 담을 대전고의 발자취를 찾습니다.

추억에 묻힌 우리들의 역사를 되살리는데 동참합시다!

2017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대전고가 지난 93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졸업앨범, 사진, 교과서, 교복, 모자 등 개인이 소장하기엔 아까운 자료를 기증 받고 있습니다. 추억을 되새기고 함께 나누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22 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 042-257-0005, 이메일 : obdk@daego.kr

동창회보 〈大稜〉을 찾습니다.

대전고등학교 동창회보 〈大稜〉는 1972년 제호 〈鷄龍〉 창간을 시작으로 지령 153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창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초창기 대능지가 훼손이 심하거나 결호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해 동문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15號를 소장하신 분들의 적극 기증 바랍니다.

대고언론인회

대전·충남 언론계 선도하는 '파수꾼'

대고언론인회(회장 이종국, 55회)는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과 충남지역 신문, 방송, 통신, 중앙 일간지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동문들로 구성돼 있다.

대언회는 50회 임치환동문과 51회 조성남 동문에 이어 55회 이종국 동문이 현재 회장을 맡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현직에 활동하는 정회원과 퇴직한 명예회원 등 5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달에 한차례 정도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모임에는 대전과 충남지역 각급 기관단체장과 기업인으로 활동하는 동문들을 초청해 소통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유인상 동문(53회)을 초청해 모임을 가졌으며 12월 초에는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이정룡본부장을 초청할 예정이다.

대언회 주요 회원들의 면면을 보면 50기대에서는 50회로 대전MBC이사를 지낸 임치환 동문과 중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고 현재는 주필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남 동문이 후배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52회에는 대전일보 이용희 동문과 중앙일보 중부본부장을 지내고 지금은 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 활동중인 전종구 동문도 후배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도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54회 최상수 동문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이다.

55회로는 대전 KBS 보도국장으로 대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국 동문과 대전일보 기획관리실장을 지내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박근태 동문, 국민일보 부국장인 정재학 동문이 있다.

56회에는 '신목민학'이라는 칼럼을 통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고정적인 매니아 독자층을 갖고 있는 중도일보의 김학용 동문과 YTN 대전지국장으로 활동중인 이정우 동문, 대전MBC 임양재 동문이 있다.

57회론 TJB보도국장을 지낸 연규양 동문이 여전히 활동중이고 대전 MBC에서 PD로 활동중인 정종건 동문이 있으며 대전일보와 헤럴드경제를 거쳐 지난 지방선거당시 한나라당 대전시당 대변인을 지낸 김영만 동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59회는 조선일보 대전·충남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임도혁 동문과 대전일보 편집부국장인 오한진 동문이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고 있다.

50기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 각 언론사와 대언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60기대에는 전체 대언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최근 60회 이인범 동문이 TJB보도국장에 올라 첫 60기대 보도국장 시대를 개막했으며 CBS보도팀장을 맡고 있는 62회 지영한 동문을 비롯해 몇년안에 각 언론사에서 60기대 동문들의 편집.·보도국장 배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70기와 80기대 동문들도 각 언론사에서 젊은 패기를 앞세워 자랑스러운 대고 언론인으로서 자긍심을 심고 있다.

〈글:김화영(66회) 동문〉

50여명으로 구성된 대언회가 대전·충남 언론계를 선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다.(사진은 재경대전고 언론인회 회원들)

대능산악회

대능인 산행 길라잡이로 '우뚝'

대능산악회(회장 이창주, 44회)가 출범 2여년만에 동문들의 등반 길라잡이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대능산악회는 지난 2009년 4월 11일 대전시 중구 소재 보문산에서 박건영(42회) 전총동창회장등 모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첫 발을 내디뎠다.

초대 회장 조용환(45회)동문을 필두로 산악대장 곽명신(50회)동문, 총무 서대원(63회)동문, 기획 임수규(65회)동문, 재무 이강진(65회)동문, 홍보 김진억(65회)동문, 산악구조대장 송철호(50회)동문, 카페지기 이준연(66회)동문등으로 진용을 구축하고 모두 13차례의 산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 지난해 6월 13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계족산 자연 휴양림에서 제2차 대능산악회 등반 및 숲속음악회를 대전시민등 모두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렀다.

8월 23일 제3차 계룡산 장군봉 산행은 대능산악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같은해 9월 13일 제4차 식장산 산행은 가을맞이 음악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12월 13일 제5차 변산반도 내변산 산행은 대능산악회 최초의 장거리 산행으로 15명의 회원이 참가했으며 올해 1월 10일 제6차 계룡산 수통골 산행은 35명의 회원이 참여, 겨울 산행의 묘미를 만끽했다.

지난 2월 7일에 실시된 제7차 강원도 소재 계방산 등반은 겨울 원거리 산행으로 45명의 회원이 1대의 버스에 동승, 눈꽃 산행을 즐기며 가족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3월 7일 제8차 계룡산 갑하산 산행은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능산악회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시산제를 지냈으며 4월 11일 제9차 만인산 산행은 산악회 창단 1주년 기념산행으로 산행 후 만인산 소극장에서 화려하고 알찬 뒤풀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새서울 내과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과 함께 만보계등 각종 건강관련식품을 협찬해 1주년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6월 6일 제10차 덕유산 산행은 참석자 45명을 2개조(초급.고급반)로 나눠 회원 개인들의 등산능력을 배려했다.

우기속에 강행된 7월 4일 제11차 계룡산 산행은 빗길속에 산을 걷는 또 다른 낭만을 맛 보았으며 8월 1일에는 제12차 식장산 산행이 실시됐다.

지난 10월 28일에 열린 대능산악회 운영위원회는 제2대 대능산악회 회장으로 이창주(44회)동문을 선임하고 동문들의 심신단련은 물론 화합과 친목의 장이 될 것을 다짐했다.

11월 7일 13차 전남 순창 소재 강천산 산행은 2대의 버스에 79명이 승차, 대성공리에 마친데 이어 송년 산행으로 12월 5일 14번째 수통골 도덕봉 등반을 앞두고 있는등 동문들의 등반 동반자로서의 자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

〈글:김진억(65회) 동문〉

12월 5일 14번째 수통골 산행에 나서는 대능산악회가 대능인 산행 길라잡이로 확실한 자리를 다지고 있다.

2010 송년의 밤

❖ 일 시 : 2010. 12. 17(금) 18:00 ~ 21:00
❖ 장 소 : 유성 리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 홀
❖ 참 석 대 상 : 동문
❖ 참석예상인원 : 500명

＊만남의 장(접수 및 환담) → 식전행사(영상물 상영) → 기념식 → 만찬 → 폐회

대능가족 등반대회 성료

1300여명 참가… 친목 · 화합의 장 마련

'2010대능가족 등반대회'가 성공리에 끝났다.

지난 10월17일 공주 산림박물관에서 열린 대능가족 등반대회는 1300여명의 동문 및 동문가족이 운집, 친목과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28회 박영규 선배를 비롯해 올해 졸업한 89회 새내기 동문까지 참여한 2시간 30여분의 등반레이스는 건강증진과 함께 대능인이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대회장에 설치된 대형전광판(200인치)은 동문들의 상황과 모습을 실시간으로 담아 등반대회의 즐거움과 함께 대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하산 후 점심시간에 제공된 얼큰한 육계장은 산행의 허기를 달랬으며 간식으로 나온 적지않은 빵은 순식간에 동이 나는등 큰 인기를 끌었다.

대회 도중 오는 2017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와 자율형 공립고 홍보에 담을 자료영상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촬영됐다.

이어 동문들의 끼와 장기를 볼수 있는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에 푸짐한 기념품 및 경품이 제공돼 동문및 동문가족들의 즐거움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이날 대능인의 자존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단합을 골자로 하는 '우리의 다짐' 결의문이 선포돼 고무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폐회시간을 훌쩍 넘기는 등 시종일관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함성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메아리쳤다.

이 모 저 모

52회 절반차지 눈길

○… 2010 대능가족 등반대회 금품협찬 동문 70명중 52회 동문이 절반에 달하는 35명을 차지해 눈길.

사연인 즉 전종구(5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과 류하룡 (52회)동문등이 등반대회 협찬금 마련을 위해 솔선수범해 총대(?)를 맸다고.

등반대회를 위해 헌신하는 두 동기의 열정에 52회 동기들이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정성을 모았다는 것이 중론.

분위기 조성에 한몫

○… 등반대회 분위기를 띄우는데 야구공과 축구공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협찬물품으로 들어온 한화이글스싸인공(36개)과 씨티즌 제공 축구공(20개)이 이벤트 행사 직전에 뿌려져 동문및 동문가족이 이를 줍느라고 때아닌 아수라장을 연출.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갑작스런 웅성임에 놀라 자연스럽게 무대로 모이는 계기를 마련.

맨발청춘 등장에 활짝

○… 한동안 운동장에 맨발의 청춘이 등장해 웃음꽃이 만발하기도.

이중엽 56회 동창회 회장이 오랜만에 동기및 가족들을 만나자 반가움에 신발을 벗고 즉석 막춤을 선사.

옛 시절을 회상하며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어 봤지만 흐르는 세월은 뱃살만큼이나 조절이 안돼.

오붓한 가을여행 만끽

○… 53회 재경동문들이 예정에 없던 전용버스를 타고 오붓한 가을 여행을 즐겼다고.

이야기 인즉 등반대회 참석인원이 거의 버스 한 대에 달해 아예 전세를 냈다고.

공주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속에서 순수혈통(?)을 가진 친구들과 어릴적 추억을 되새기며 한층 우정을 공고히 했다고.

성금 66회에 양보

○… 44회 동창회가 최다참가기상(41명)으로 받은 상금을 후배들에게 양보해 화제, 이종훈 총동창회장과 김주필 재경회장을 배출한 44회 동창회는 최다참가기상으로 받은 상금을 66회 후배들에게 양보해 .

이를 받은 66회 후배들은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차기 행사에 더욱 더 많이 참가하고 동창회에 헌신 할 것을 다짐.

부러운 속내 못속여

○… 100주년 기념행사와 자율형 공립고 홍보자료 촬영에 70회 동창회가 지대한 공을 세워.

70회 동문 6명이 점심시간의 산만한 분위기를 잡고 동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파이팅"구호를 목이 시도록 외쳐.

이에 감동한 40기수대 선배동문들이 자발적으로 비디오 촬영에 동참해 촬영이 일사천리로 끝나.

촬영기사 "대고는 달라도 달라" 부러운 속내는 목 속여

장기자랑 한동안 중단

○… 흥겨운 장기자랑 무대가 한동안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해 옥에 티가 되기도.

사회자의 익숙한 진행으로 한창 흥을 돋우는중 예기치 못한 동문이 무대에 올라 횡성수설하는 촌극을 연출.

이 동문은 집행부의 잇단 제지에도 한동안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아 동문들의 원성을 사 .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한 동문 자제의 실망어린 눈초리에 왠지 민망한 마음이 드는 건.

1등 당첨자 안나타나

○… 행운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안나타나 동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사회자가 1등 당첨자를 수차례 호명했음에도 불구, 행운의 사나이는 온데 간데 없어.

결국 몇차례 추첨 끝에 이수현(39회) 동문이 PDP TV(42인치)를 받는 행운을 누려.

2010 대능가족 등반대회 협찬내역

• 현 금

2010. 11. 24. 현재

기 수	성 명	납 입 액	총동창회 직책	비 고
44	이종훈	10,000,000	회장	대덕약국 약국장
28	박영규	500,000	고문	신광택시㈜ 회장
33	박종윤	500,000	고문	(주)세창 회장
37	이규성	300,000	고문	KORAMCO자산신탁㈜ 회장
38	심대평	300,000	고문	국민중심연합 대표
38	송인섭	500,000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38	이동호	100,000		재경동창회 대능산악회장
38	김정배	100,000		전 서울시 동장
41	김각영	500,000	고문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42	박건영	500,000	상임고문	서울정형외과 원장
43	백광전	500,000		한미타올㈜ 대표이사
44	송화순	300,000	수석부회장	전 대전MBC 보도국장
44	성필호	1,000,000	수석부회장	광성기업㈜ 대표이사
44	천진석	200,000	자문위원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
44	오수정	1,000,000	부회장	대전서부병원장
45	김보현	500,000	수석감사	김보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45	홍승원	100,000	부회장	대전기독요양병원장
47	박웅범	500,000	부회장	(주)중앙개발 대표이사
48	이기재	1,000,000	부회장	㈜제이스통상 대표이사
49	유의규	500,000	명예회장	모교 교장
49	박병석	300,000	자문위원	국회의원
49	송용호	500,000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총장
50	안정권	100,000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사무국장
51	이철호	300,000		대전시의사회장
51	박기서	100,000	이사	박기서내과 원장
52	홍종오	1,000,000	차석감사	대전시약사회장
52	임정수	500,000	부회장	임정수 법률사무소
52	김창수	300,000	자문위원	국회의원
52	이명수	300,000	자문위원	국회의원
52	홍성표	300,000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52	박성효	200,000		전 대전시장
52	박승억	200,000	52회장, 이사	박승억내과 원장
52	이대복	200,000	자문위원	관세청 차장
52	정석용	200,000		신화약품㈜ 대표
52	고길석	200,000		㈜진영코리아 대표이사
52	이정환	200,000		명성조명㈜ 대표이사
52	류인출	100,000	이사	토지주택연구원 교수
52	박경철	100,000	이사	대전교육청 미래인재육성과 장학관
52	류동렬	200,000	자문위원	우리은행 충청영업본부장
52	박상수	100,00		이화피부과 원장
52	유하룡	100,000	이사	파랑새기획 대표
52	김종건	100,000		선병원 부원장
52	정철수	300,000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2	손종록	100,000		충남농업기술원장
52	호국환	100,000		산타크로스 궁동점 대표
52	박준현	200,000		충남기업사
52	이학준	100,000		명전사 사장
52	김시섭	100,000		대전기술정보학교
52	박준태	100,000	이사	대전공고 교장
52	김재석	100,000		한밭교육박물관장
52	권오석	100,000		충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52	정병춘	100,000	web기획실장	해피정닷컴
52	임승수	100,000		공주 중앙방사선과 원장
52	김성배	100,000		㈜덕성 부사장
52	김정모	100,000	이사	대전동부교육청 관리국장
52	서인석	100,000		행림내과 원장
52	성기철	100,000		㈜오펙엔지니어링 대표이사
52	최광원	100,000		우송고
53	권선택	300,000	자문위원	국회의원
53	유인상	300,0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4	박춘홍	300,000		기업은행 충청지역본부장
54	김오중	300,000		국민은행 충청서영업본부장
54	강인빈	500,000	자문위원	세우건설산업(주) 대표이사
55	유재일	500,000	이사	국회도서관장
56	구본석	300,000	자문위원	구본석치과 원장
56	송인수	300,000	부회장	산업은행 대전본부장
57	김종구	500,000	감사	회계법인상지원대표
58	문성식	300,000	부회장	문성식법률사무소 변호사
58	변재훈	500,000	58회장, 이사	타임문고 대표이사
58	이한영	500,000	재경58회장	리&리 국제특허법률 대표변리사
58	이광우	500,000	자문위원	이광우치과 원장
61	김성덕	500,000	부회장	영창토건 대표이사
68	김상수	200,000	이사	디지털프라자 산성점 대표
70	이재덕	200,000	70회장, 이사	㈜국토종합기술단 대표이사
재경동창회		1,000,000		
대동모		1,000,000		대전고 동문을 사랑하는 모임
대도능산회		200,000		도청재직 동문모임
젊은대고회		300,000		60~70회 전현직 임원모임
교능회		300,000		대전시 교육계 동문모임
대능골프회		200,000		동문 골프모임
대우회		100,000		연구단지 기자재 납품 동문모임
합 계		35,500,000		

• 물 품

2010. 11. 24. 현재

기수	성 명	내 용	상 당 액	비 고
44	이종훈	생수 1000병, 박카스 500병	50만원	총동창회장
44	김종희	기념품 35개	60만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45	김윤식	대전시티즌 싸인공 20개	20만원	대전시티즌 사장
50	장윤선	다밀한방화장품세트 2종	37만원	㈜동양RD 사업본부장
51	송시헌	건강검진권 3매, 등산복 3벌	200만원	충남대학교병원장
52	전종구	골프스윙배트 5개, 한화이글스싸인공 36개	105만원	사무총장
52	육근만	디지털사진액자 3개	60만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53	한만희	수건 200장	1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53	임용철	한방소화제 100개	55만원	대전대학교 총장
54	서만철	파리바게트 빵 1000개	100만원	공주대학교 총장
54	박종덕	자전거 10대	100만원	하나은행충청사업본부대표
56	방종태	소노래 식사권 5매	25만원	한식당 소노래 대표
57	임순석	소주 600병	60만원	(주)선양 본부장
60	박헌주	파파호두 교환권 20장	20만원	파파호두 둔산점 대표
62	김재갑	생수 1000병	30만원	르노삼성자동차 대전충부지점 과장
66	박선규	천연비누세트 10개	10만원	착한가게 대표
67	심완준	던킨도너츠 4상자, 게토레이100캔	20만원	㈜시대공감 대표이사
68	김창선	볼펜세트 10개	10만원	대전우체국 공무원노조지부장

기별분담금 납부내역

2010. 11. 24. 현재

기 수	납 입 액	기 수	납 입 액
41회 동창회	1,000,000	42회 동창회	1,000,000
43회 동창회	200,000	44회 동창회	1,000,000
46회 동창회	1,000,000	47회 동창회	1,000,000
48회 동창회	1,000,000	49회 동창회	1,000,000
51회 동창회	1,000,000	52회 동창회	1,000,000
56회 동창회	1,000,000	57회 동창회	1,000,000
58회 동창회	1,000,000	59회 동창회	1,000,000
68회 동창회	1,000,000	합 계	14,200,000

'모였습니다' 대능가족 등반대회에 모인 동문 및 가족들이 식전행사에 참석, 대열을 갖추고 있다. 공주산림박물관에 모인 1300여명 동문들의 위용에 가을 하늘마저 청명한 날씨로 맞이하고 있다.

'아빠 빨리가요' 동문 및 동문가족들이 정상을 향해 발길을 옮기고 있다. 아빠와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아이의 모습이 귀엽고 앙증맞기만 하다.

'모교사랑 영원히' 등반대회에 참석한 박영규(28회)·박종윤(33회) 원로동문과 이종훈(44회)총동창회장, 김주필(44회)재경동창회장, 유의규(49회)모교교장이 단상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깃발 부대 등장' 우리의 다짐 결의문 낭독에서 각 기수별 대표들이 나와 정렬하고 있다. 자유스럽고 형형색색의 복장에서도 다짐의 표상인 깃발만은 확실하게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산행의 허기를 달래려는 동문들이 오뎅과 떡볶이 코너에 몰려 들고 있다. 입맛을 다시면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동심의 세계로 온 듯한 착각마저…

'세월은 흘러도 노래는 남아' 등반대회의 흥을 더한 3명의 초청가수가 열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건, 방주연, 이태원씨)

수고하셨습니다' 등반대회 실행위원들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완벽한 행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한 그네들이 있기에 오늘도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모교 자율형 공립고 설명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기가 대전시청 강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홍보책자 1500부가 순식간에 동이나는 등 학부모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홍보물 순식간에 동나 '인산 인해'

모교 자율형 공립고 대전시청 강당 설명회 대성황

모교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모교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청 3층 강당에서 자율형 공립고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악합주부 공연을 시작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영상 메시지에 이어 유의규(49회)교장의 인사말과 송광용(50회) 서울교육대학교총장의 특강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논술작성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학천(53회) 박사의 논술 강연과 나태순(53회) 교감의 학교 운영및 입학에 관한 설명회에는 강당에 꽉 찬 학부모의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이날 설명회에는 홍보책자 1500부가 모두 소진되는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서 유의규 교장은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가 열정을 쏟는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학부모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어 송광용 총장은 현실감각에 바탕을 둔 자녀교육론을 유머스럽게 전개하면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대전고를 선택하는 것이 학부모에게 얼마나 현명한 판단인가를 설명했다.

또 박학천 동문의 논술강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향후 대학입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등 논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공감을 얻었다.

나태순 교감은 설명회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학교 운영및 입학 안내에서 학력책임 교육과정의 독서·논술 지도, 수학교육 강화, 진로비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입학전 학습 컨설팅, 선택과정 조기 실시등 타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한모 3·3·3 프로젝트, 100&0 방과후 학교 운영, 꿈의 요람 기숙사,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준비 프로그램 등을 상세하게 설명,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설명회 장소인 대전시청 강당은 물론 각 통로와 출입구 주변까지 빈틈없이 들어선 학부모들은 입학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메모하는등 시종일관 설명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유의규 교장은 행사가 끝난 뒤 "설명회에 대한 학부모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는 본교가 나아갈 길을 보여 준 것"이라며 차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되짚어 보며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교직원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유의규(49회) 교장 인터뷰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본교는 풍부한 인적네트웍과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명문 대고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 교장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본교의 장점으로 기숙사의 특별 프로그램, 영어. 수학 '3+2'형 수준별 이동수업, 수학교육 강화,입학전 학습컨설팅,2014년 대학입시 대비 교육과정 편성등을 제시했다.

또 1학년부터 선택중심 교육 과정 운영,체계적인 독서. 논술지도등 타학교보다 학력신장 및 진로.진학지도가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나타냈다.

"명문 전통계승 최선 다할 터"

자율형공립고 설명회에서 유의규(49회) 모교교장은 학부모와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수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유 교장은 실제로 본교가 배출한 3만6000여명의 동문이 세계를 무대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후배들의 사회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동창회가 후원하는 장학금이 매년 1억5000만원 이상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장은 이어 야구부와 농구부, 관악합주부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조화로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데다 교사 재건축과 넓은 인조 잔디 운동장 등의 최신 학습 환경을 구비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교장은 본교의 또 다른 장점으로 대전지역 공립학교에서 열정적이며 교과실력이 뛰어난 교사를 100% 초빙할수 있는등 우수한 교사진 확보를 꼽았다.

전국수석 2차례 '기염' 2학년 재학 김호연군

전국 규모 모의고사에서 2차례나 수석을 차지한 재학생이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모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호연군.

김 군은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해 명문 대고의 기상을 드높였다. 김 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실시된 대성 모의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바 있다.

본교 한모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 군의 꿈은 AIDS같은 현대 불치병 치료법을 연구하는 의학자.

모교 송영곤(57회) 교무부장은 "학습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수업태도가 올바른데다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야구 전국체전 준우승

결승서 천안북일고에 아깝게 져

모교야구부가 올 전국체전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모교야구부(감독 양후승)는 지난 10월 경남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야구결승에서 천안북일고에 2대3으로 패해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다.

모교야구부가 전국규모 야구대회에서 결승에 오른 것은 지난 2002년 무등기야구대회 이후 처음이다.

모교야구부는 10월8일 열린 1차전 경기에서 군산상고를 7대2로 대파한데 이어 10일 8강전에서 인천 제물포고를 5대2를 격파하고 4강에 올랐다.

이어 12일 4강전에서 광주일고를 4대3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재경 대전고 연례골프대회가 지난 10월 10일 캐슬파인G.C에서 동문 10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에 앞서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경 대전고 연례골프대회 '굿 샷'

여주 캐슬파인 G · C 모두 104명 참석

2010 재경 대전고 연례골프대회가 지난 10월10일 경기도 여주소재 캐슬파인 G · C에서 열렸다.

모두 104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이종훈(44회) 총동창회장과 김주필(44회) 재경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장영철(45회) 재경동창회 골프동호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날 참석자중 한 동문은 "꽃향기는 백리를 가고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며 이날 모임이 화기애애하고 승부를 떠나 정이 담뿍 담긴 뜻깊은 대회였다"며 미소를 지었다.

현금협찬(1350만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주필(44회) 일백만원, 이기천(45회) 일백만원, 장영철(45회) 이백만원, 박희섭(46회) 일백만원

나병선(48회) 오십만원, 이상헌(49회) 일백만원, 권호상(49회) 일백만원, 황성연(51회) 일백만원

이철재(51회) 일백만원, 이의범(61회) 4백만원

상품협찬(1000만원상당)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심대평(38회) 산삼비누셋트 10조, 장영철(45회) 일미농산 반찬셋트 120조, 목이균(48회) 렉스필드 무료 이용권 10매, 조석준(51회) 볼빅 캐디백셋트 및 골프공 120줄과 진로복분자 선물셋트 10조, 전종구(52회) 골프스윙배트 3개, 조동인(56회) 해커스 영어동영상 수강권 10매

경기가 끝난후 열린 만찬에서 시상과 함께 행운권 추첨이 열려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 및 경품이 제공됐다.

바둑 8강진입 실패 고교동문 바둑대회

모교동문 바둑대표들이 고교 동문바둑대회 8강 진입에 실패했다.

지난 10월 3일 경기 분당구 서현동 소재 바둑 TV 1층 대국실에서 열린 '제 4회 고교동문 바둑대회' 16강전에서 모교동문 바둑대표들은 강력한 우승후보인 충암고에 1대2로 져 분루를 삼켰다.

이번 대회 모교동문 대표선수로 김건정(52), 임성빈(53), 이종진, 정범훈(54), 조남선(58), 원철(62)동문등이 참가했다.

'재경 대능인의 밤' 12월14일 개최

'2010년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능인의 밤' 행사가 오는 12월 14일 오후 6시 서울프라자호텔 신관 지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리셉션 및 영접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1부 정기총회(결산및 예산보고)와 만찬에 이어 2부 뽀빠이 이상용 동문의 사회로 송년회및 경품 추첨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 참석과 협찬품및 찬조금 문의는 재경동창회 사무국 (02-2278-8868)이나 재경동창회 사무국장 강신훈(53회)동문에게 하면 된다 (010-2273-5350)

협찬금구좌는 국민은행 068-01-0423-567 재경대전고동창회이다.

동문 테니스대회 '굿 스매싱'

서울대 테니스 코트… 60명 참석

제 26회 동문 친선테니스대회가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모두 60명이 참가, 단체전(OB · YB)과 개인전(OB · YB)으로 나눠 열린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단체전의 경우 OB조는 곽주양 김시중 신태산 엄명철(45) 육재호(60), YB조는 목이균(48) 강호병 김영일 김창수 이규갑 장내환(55)조가 차지했다.

또 개인전은 OB조 신태산(45) 이해규(53), YB조는 김용택 육재호(60)동문이 각각 우승했다.

동문친선 테니스대회에 60명이 참가, 열띤 경합을 벌였다.

◇ 경 비 정 산 내 역 ◇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1. 참가 회비 수입		1. 상품(60개)	720,000
24명수 × 2만원	480,000	2. 기념품수건(60개)	130,000
2. 찬 조 금		3. 중식(50인)	170,000
강헌모(45)회장	500,000	4. 커피, 녹차, 술, 물, 컵, 접시,	130,000
		과일, 포, 자리, 휴지, 봉투	
재경동창회	500,000	5. 주차권(30)	60,000
목이균(48), 박희영(49)	200,000	6. 현수막	70,000
박용성(50)	100,000	7. 교통비	15,000
정영재(54)	100,000	8. 석식(50인)	365,000
이건복(51), 이해규(53)	200,000	9. 공	120,000
3. 전 대회(23회) 이월금	0	10. 차기이월금	300,000
계	2,080,000	계	2,080,000

◇ 수 상 내 역 ◇

구 분	단체전(35개전원)		개인전(8개추가)	
	OB조	YB 조	OB 조	YB 조
우 승	곽주양, 김시중, 신태산, 엄명철(45), 육재호(60)	목이균(48), 강호병, 김영일 김창수, 이규갑, 장내환(55)	신태산(45), 이해규(53)	김용택, 육재호(60)
준우승	강충권, 고길수, 김정기, 이건복, 최병갑(51)	김동수, 김연권 부부 박광주, 박종훈, 서석성(54)	곽주양(45), 목이균(48)	강구봉, 천성민(55)
3 위	박용섭(50), 김철수, 이상필, 이해규, 최윤중(53), 김용택(60)	강구봉, 김선진, 김종만 송민열, 한영기, 천성민(55)		
4 위		김재흠(52), 강문식, 김해길 박세학, 박천수, 이익주(59)		

오는 2017년 개교 100주년… 3당 동문에게 듣는다

민주당 박병석(49회) 의원

대전고 49회 박병석입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동창회보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의규 대전고 교장선생님과 동기입니다.

대전 최초 연속 3선 국회의원(대전 서갑)입니다. 올해도 270여개 시민단체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 총 8번째 수상이고, 이번 국회 들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입니다. 항상 대능인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간 도와주신 선배님, 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전고가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 많은 학부모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지원을 더받으며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 교원연수 등으로 '명문대고, 전통대고'를 다시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수한 선생님들도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오래된 대전고 학교건물이 새롭게 건축됩니다. 현대식 교실에서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1백주년이 2017년입니다.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1백주년은 큰 의미입니다. 숫자로는 평생이 한번 만나면 행운입니다. 모교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뤄 놓은 명성을 오늘날 어떠한 방향으로 재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대전고가 1백주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대전고에 대한 기대감을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선배위업 계승에 역점… 자랑스러운 대고인상 재정립

자유선진당 권선택(53회) 의원

온 산야를 붉게 물들이던 단풍마저 겨울나기 준비에 들어간 지금,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한모인의 포효가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에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대전·충청권 최고의 명문 우리 대전고등학교가 대전에서는 최초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대전고를 졸업한 동문의 한사람으로 우리 대전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율형 공립고란, 일반 공립고보다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 편성권을 갖고, 학생은 스스로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기존 공립학교의 저렴한 학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까닭에 자공고 선정은 곧 명문으로 가는 보증수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으로 이제 우리 대전고등학교는 명실상부 대전 충청권 최고 명문고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이전에도 2007년도 학력신장 최우수학교, 2008년 대전시교육청 EduCore 학력신장 우수학교, 2009년 방과후 학교 최우수교 등을 수상했지만, 이번 자율형 공립고 선정은 이전의 수상과는 차원이 다른 쾌거입니다.

'명문대고'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년 뒤면 곧 개교 100주년이 됩니다.

모쪼록 자율형 공립고 선정이 대전고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미력이나마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선정 '명문대고' 제2도약의 기틀 다져

한나라 대전시당 윤석만(54회) 위원장

먼저 모교인 대전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에 지정되어 낙후된 원도심 교육문제 해결의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다시 한 번 비상하길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으며 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더 높은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는 더욱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변화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과거로 회귀할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이는 각급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현실의 흐름에 발맞춰 모교인 대전고등학교는 제2의 도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교를 방문하여 변화하는 학교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충분한 학습공간의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심적 기능과 더불어 심미(審美)적 기능까지 겸비한 교사 재건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제2의 명문고로 가기위한 하드웨어적 구축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사 재건축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시점부터는 소프트웨어인 내실 즉, 경쟁력 있는 좋은 학생의 확보 및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선생님의 영입 그리고 동문 선배들의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이루어져 삼위일체로 어울어지는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기까지는 뒤에서 수고하신 동문 선·후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후배의 사랑에 투자하는 동문선배의 애정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대전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원도심 교육과 지역교육 평준화의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대전고등학교의 명성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모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수 학생·교사 확보, 동문 관심등 삼위일체 돼야

대전고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가 www.obdaego.com에서 www.daego.kr로 개편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동창회의 모든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 회원 가입을 하시어 동문 본인의 정보를 확인, 수정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으며 해외 거주 동문들도 가입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게시판 중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회원가입 관련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server 단독 임대
- daego.kr 도메인을 기별동창회나 모임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omain 비용, server 이용료가 없습니다. 또한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므로 기별동창회에서 별도로 회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필요한 기별동창회나 모임에서는 총동창회로 연락주십시오.

● 동문 여러분의 애정어린 채찍질을 기다리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관련된 개선, 의문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고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 동문 여러분! 바로 가입하시어 본인 정보 확인 하시고 대전고등학교 동문간의 networking에 참여하십시오.
- 가입하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주위에 계신 동문들께도 알려주시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홈페이지 배너광고 모집

상단 특대 (特大)	우측 대 (大)	좌측 소 (小)
3개업체	3개업체	5개업체
200만원 / 년	100만원 / 년	50만원 / 년

소설가 정건영(38회) 동문

소설가로 유명한 정건영(38회) 동문이 부산일보사가 주관하는 올해의 문학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월남전 참상 고발 소설로 수상

정 소설가는 최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요산 김정한 선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7회 요산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 소설가는 수상작인 소설집 '낯선 시간 위에서'는 "실천적 지식인의 면모와 불교의 자비 및 유교의 인의 사상이 요산의 문학정신에 공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간을 바탕으로 하는 휴머니즘 실천과 나아가 거룩한 인간 복권과 인권 실현을 소설쓰기의 지향적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소설가는 "소설집의 근간이 됐던 베트남은 소설로 도피하게 하면서도 다시 돌아와 수상의 영광을 얻게 한 이률배반적 존재라고 부연했다.

정 소설가는 연세대 국문학과를 나온 뒤 해병대 장교로 월남전에 파병돼 1년동안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몸소 겪었다.

대한적십자 지사 민경용(43회) 회장

"3만여 봉사원 및 RCY 구성원과의 소통과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RCY 조직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인도주의 운동 새 지평 열터"

대한적십자사 대전 · 충남지사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 민경용(43회)동문은 취임 일성으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민 회장은 "기상이변등 예상치 못했던 재난에 대응할수 있도록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인도주의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평소 인도주의 운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민 회장의 소신이 표출되는 대목이다

민 회장은 지난 1981년 대전.충남지사 대의원을 시작으로 RCY 위원장과 위원, 지사 부회장을 거치는 등 적십자사 업무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유성에 있는 홍인관광산업(주) 대표이사 · 회장을 맡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박해춘(47회) 회장

박해춘(47회)동문이 용산역세권개발(주)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총사령탑을 맡게 된 박 회장은 "한국의 알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등 국외자금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이를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후 이익을 돌려주는 리츠상품이나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 · 홍콩 등 화교자금 적극 유치

박 회장은 "세계 어느 도시를 둘러봐도 용산만큼 천혜의 입지 여건과 상징성을 가진 곳은 없다"며 용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삼성화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딘 박 회장은 서울보증보험 사장,엘지카드 사장,우리은행장,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등 금융계 핵심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대전보훈병원 조현묵(48회) 원장

"구국의 일념 하나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려 대전보훈병원을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영예'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에 이어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4년연속 우수병원으로 선정된 대전보훈병원 조현묵(48회) 원장은 이같은 결의를 다졌다.

조 원장은 이를 위해 우수의료진을 확보하고 최첨단 장비 및 시설을 확장, 현대화해 유공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겠다며 세부사항으로 31병동 재개설과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를 추가로 구입,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 의과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의과학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유원장은 국군대전통합병원, 중앙의과의원장, 서천군 의사회장, 서천군립노인병원장, 충청남도 의사회장 등을 거쳤다.

충남신보 정철수(52회) 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제6대 이사장에 정철수(52회)동문이 선임됐다.

정 이사장은 최근 충남도가 실시한 공개채용 모집에서 까다로운 절차 및 심사로 유명한 공개채용심사위원회와 재단 이사회의 심도있고 다각적인 통관의 례를 무난히 통과했다.

"내실 정책으로 도민 기대 부응"

정 이사장은 "역량과 지식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실있는 정책으로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출신인 정 이사장은 지난 1981년 신용보증기금 입사이후 30년동안 줄곳 신용보증기금에 몸담아 온 신용보증업무의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에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실있고 실현성이 높은 지원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묵한 성격으로 일처리가 신중하고 빈틈이 없다는 평이다.

대전국토관리청 유인상(53회) 청장

유인상(53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금강살리기 전도사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금강 살리기로 재난 적극 대처"

유 청장은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충청인의 자존심이자 미래세대의 보고인 금강을 살려 수자원 보호는 물론 홍수등 재난사고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자신의 고향에서 근무하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충청지역과 모교 발전은 물론 동문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농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도시계획과와 미국위스콘신 메디슨대 교통공학과(석사)를 졸업한 유 청장은 기술고시(20회)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 항공안전본부 공항시설기획관, 공항항행정책관등을 역임했다.

권정숙 여사와의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육군대 황인무(54회) 총장

신임 육군대학총장(소장)에 황인무(54회) 동문이 임명됐다.

황 총장은 육군사관학교(35기)를 졸업한데 이어 육군 핵심보직 두루거친 전형적 무인

핵심보직 두루거친 전형적 무인

대학 정규과정과 경남대 경영대학원을 마쳤다.

수도기계화사단 포병여단장, 청와대 비서실 국방담당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담당관,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실 군사보좌관, 제32보병사단장,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장등 군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데 이어 보국훈장 천수장과 지난 2007년에는 동창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대능인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형적인 무골형으로 매사 신중하고 사리가 밝아 상 · 하간에 신망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처리로 부하들로부터 만형으로 불릴만큼 칭송이 자자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조남희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있다.

경북대 이강은(57회) 교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 전기를 국내에서 처음 완역해 출간한 동문이 있어 화제다.

톨스토이 전기 처음 완역 '화제'

화제의 주인공은 '레프 톨스토이 1, 2'를 출간한 이강은(57회)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이 교수는 "톨스토이 작품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고 최근 관련도서 출판종수만 해도 300종이 넘는데도 불구, 톨스토이의 본격적 전기가 전무했다"며 이 책을 번역 출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톨스톨이의 문학과 사상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톨스토이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종합할수 있으며 새로 톨스토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톨스토이에 대해 흥미롭고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의 원저자는 현대문학 비평의 원조인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 개념을 처음 제기한 빅토로 쉬클롭스키(Victor Shklovsky)로 톨스토이의 작품인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이 개념을 얻어 냈다.

대능산악회 김진억(65회) 동문 강천산 산행기

김진억 동문

11월7일 대능산악회 제 13차 강천산 가을 산행이 시작됐다.

다소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오전 7시. 79명의 회원 및 가족을 실은 2대의 버스는 집결지인 대전시청을 정각에 출발, 서대전우체국을 거쳐 목적지인 전남 순창에 있는 강천산을 향해 기수를 틀었다.

달리는 차안에서 이창주(44회) 대능산악회장과 이종훈(44회) 총동창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개인별 인사 및 소개가 이어졌으며 아침식사로 제공된 떡과 김밥은 회원들의 공복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2시간여를 달린 버스는 단풍시즌 행락객을 감안해 강천산을 우회, 남문에 다다랐다. 도착즉시 곽명신(50회)산악대장의 3개코스에 대한 설명에 이어 단체사진 촬영과 함께 기본체조로 몸을 풀었다.

드디어 정상을 향해 출발.

산행중 다가서는 강천산의 자태는 울긋불긋한 단풍만큼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했으며 짖궂은 안개가 간간이 시샘을 부렸지만 강천산의 수려한 비경을 감출수는 없었다.

대능산악회 회원 및 가족들이 강천산 산행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원내는 이창주(44회) 대능산악회장〉

강천산 비경에 동문간 우애 '절로'

적당히 흐르는 땀을 훔치며 하늘을 쳐다보니 어느새 정상이 눈 앞에 다가와 있었다.

간단히 김밥등으로 점심식사를 때우고 하산길에 나섰다. 집결지인 주차장까지의 길은 의외로 만만치 않았다. 4km에 이르는 하산길의 지루함은 인공폭포등 다양한 볼거리가 달래주었다.

집결지에 도착한후 버스를 타고 인근에 있는 뒷풀이 장소를 찾았다.

뒷풀이 장소인 펜션에서 제공된 걸쭉한 찌개는 산행에 지친 회원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다.

한잔, 두잔 건네지는 술잔에서 선후배간의 서먹함은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있었다.

건배!건배! 건배! 이렇게 정감이 나는 말이 또 있으면 대 보슈?

순창을 출발한 귀가버스는 그야말로 노래방을 방불케 했다. 선후배 누구라 할 것 없이 맛깔나게 뽑아내는 노래 실력은 "가수들이 왔나"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귀가 차량이 몰려 도착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짜증스런 표정은 찾을 수가 없었다. 버스는 오후 9시30분 대전시청에 도착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헤어짐의 악수속에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 산행을 기약했다.

지회소식

<안양지회>

◆ 재안양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 대전고 동창회
- 일시 : 11월 30일(화) 19시
- 장소 : 안양옛집(031-386-3588) 평촌 조선일보사옥 맞은편, 평촌역 2번출구
- 임원 : 회장 장두진(44회), 총무 정재필(57회)

기별동문동정

◆ 정정 : 대능지 152호에 게재된 동창회 발전기금 500달러를 기부한 미 시카고 거주 설재섭 동문은 49회가 아닌 47회로 바로 잡습니다.

<35회>

◆ 가을친선모임 행사
- 일시 : 9월 30일
- 장소 : 대전오월드

◆ 2010년도 하반기 임원회의
- 일시 : 11월 15일
- 장소 : 동창회관
- 안건 : 임원개선, 연회비 조정의 건 및 운영방안 개선의 건

◆ 대신회 임원개선
- 회장 : 이정호, 총무 이영복

◆ 연락처변경
- 김연수 : 010-5456-8132

<36회>

◆ 산업시찰
- 일시 : 2010.10.12~13(1박2일)
- 장소 : 고리원자력 발전소(기장)
- 주관 : 그린램프환경연합 충남지부(지부장 : 36회 유일준)
- 후원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 36회 이재환)
- 참석 : 28명(대고36회 대전지역 동문)

◆ 후반기 임원회의
- 일시 : 2010년 11월 12일 18:00
- 일시 : 월산본가
- 토의사항 : 총회 및 차기 임원선출, 2011년 동창회 운영방안

◆ 연락처변경
- 김성식 : 010-7937-8917
- 김영원 : 010-4027-2775
- 박희종 : 010-9423-3383
- 오경환 : 010-5420-9079
- 임인팔 : 010-7425-4757

◆ 애경사
- 황상진 : 본인상 10.15
- 이중희 : 본인상 10.25
- 유재환 : 자혼 11.20

<37회>

◆ 재경37회 동창회 임원회의
- 일시 : 11월 18일
- 장소 : 한일장

◆ 재경37회 동창회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 일시 : 12월 16일 12시30분
- 장소 : 한일장
- 회비 : 10,000원

<38회>

◆ 2010년 정기바둑대회
- 일시 : 6월 6일(토)
- 장소 : 동창회 사무실
- 참석인원 : 20명
- 결과 : A조 우승 김봉수, 준우승 성종열, 장려 김수동
  B조 우승 이계웅, 준우승 박상록, 장려 배정설

◆ 가을단풍 감상 단합대회
- 일시 : 11월 6일(토)
- 장소 :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
- 참석인원 : 46명

◆ 애경사
- 정승남 : 본인상 7.24
- 성종열 : 본인상 9.9
- 이인복 : 부친상 10.18
- 임재근 : 여혼 11.13

<40회>

◆ 이사회 겸 GS대회
- 일시 : 9월 16일
- 장소 : 둔산타향골식당

◆ 대전 · 서울 회장단 졸업50주년 행사 협의
- 일시 : 10월 5일
- 장소 : 서울 동창회관

◆ 재경 2010하반기 이사회
- 일시 : 10월 25일

◆ 합동야유회
- 일시 : 10월 28일
- 장소 : 예산 덕산 일원 및 수덕사
- 참석 : 대전24명 서울24명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차종욱 : 대전 유성 봉명동 도안6단지 휴먼시아센트럴시티 602-1601
- 김선균 : 010-8114-0008
- 김자중 : 010-6720-6674

◆ 애사
- 서정관 : 본인상 10.23
- 이규남 : 모친상 10.31

<41회>

◆ 축하
- 김진혁 : 10월 24일 춘천 마라톤대회 포함, 7번째 마라톤 완주

<42회>

◆ 수요 사랑방 가을 소풍
- 일시 : 10월 13일(수) 9:30~19:30
- 장소 : 대천항구 일원

◆ 2010년 11월 동기 월례회
- 일시 : 11월 12일(금) 18:30
- 장소 : 사랑채 식당(☎253-8571)

◆ 2010 하반기 재경동기회이사회
- 일시 : 2010. 11.12(금) 6:30
- 장소 : 강진수산물 직판장

◆ 축하
- 이만희: 2010.11월 중순 경, C앤C정형외과 이전 개업 〈C-care, C-cure〉 서울 서초 방배1동 910-13 서경빌딩 5층 ☎02)523-7733 FAX 02)532-5977

◆ 애경사
- 민광기 : 자혼 10.24
- 이상용 : 자혼 10.30
- 임영환 : 모친상 10.30
- 김광웅 : 장모상 10.31
- 송수호 : 여혼 11.14

• 유병두 : 여혼 11.21

<43회>

◆ 행사
• 11월 정기등산 : 11월 6일(토) 옥천 어부동~방아실
• 정기모임 : 10월 23일(토) 유성신화수산

◆ 송년회
• 송년부부동반모임 : 12월 18일(토) 홍인호텔 2층(금강홀)
• 재경43총회 및 송년회 : 12월 9일(목) 군인공제회 4층

◆ 산악회
• 재경산악회 : 10월 25~26일(1박2일)설악산 대청봉, 울산바위 등산

◆ 축하
• 민경용 :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회장 취임 11.9

◆ 경사
• 신웅원 : 여혼 10.2
• 승정표 : 여혼 10.10
• 권오균 : 여혼 10.16
• 김희재 :자혼 10.23
• 박승호 : 자혼 11.6
• 김종문 : 자혼 11.6
• 박용상 : 자혼 11.14
• 황의달 : 여혼 11.27
• 유원근 : 자혼 12.11

<45회>

◆ 2010년도 정기총회
- 일 시 : 11월 15일(월)
- 장 소 : 태 원
- 임원 개선 : 제32대 회장 박대범 감사, 이사, 총무 유임

◆ 45산악회
가을 단풍 산행으로 경기도 광릉 북쪽에 위치한 죽엽산(600m)과 국립 광릉수목원을 부부동반 16명참석, 1박2일의 일정으로 다녀옴

◆ 애경사
• 정성용 : 자혼 9.11
• 김광열 : 자혼 10.23
• 이종수 : 자혼 10.31
• 김영진 : 부친상 11.3

<46회>

◆ 축하
• 송병대 사무실 개소 - 유성 현대리조텔 1001호(홍인장 맞은편)
☎ 011-443-8855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강상규 : 대전 유성 봉명동 도안휴먼시아6단지 센트럴시티 605-1001
• 류창호 : 대전 동구 용전동 23-8 3층
• 이재형 : 대전 서구 갈마1동 인터빌A 101-406
• 강일수 : 010-9402-7331
• 김종성 : 010-5436-2225

◆ 애경사
• 류재성 : 모친상 9.29
• 배휘식 : 부친상 10.1
• 박노환 : 자혼 10.10
• 윤석무 : 자혼 10.16
• 박덕순 : 여혼 10.23
• 황찬주 : 여혼 10.23
• 권왕원 : 자혼 10.30
• 고승현 : 자혼 10.30
• 박희섭 : 여혼 10.31
• 이원오 : 자혼 11.6
• 정태욱 : 여혼 11.6
• 곽희준 : 자혼 11.13
• 백승철 : 자혼 11.27
• 김종남 : 자혼 11.27
• 소원섭 : 자혼 12.5

<47회>

◆ 서울 · 대전 합동체육행사
- 일시 : 10월 31일(일) 10:00~16:00
- 장소 : 영등포여고 실내체육관
- 60여명 참가하여 반별로 배드민턴, 족구, 탁구시합으로 우정을 다짐

◆ 애경사
• 심범진 : 부친상 9.19
• 백병만 : 장모상 9.24
• 송주천 : 모친상 10.8
• 박광식 : 부친상 10.8
• 김용욱 : 장모상 10.14
• 이운구 : 모친상 10.18
• 김태수 : 여혼 10.2
• 권용문 : 여혼 10.3
• 임치규 : 자혼 10.9
• 이기문 : 여혼 10.9
• 임병수 : 자혼 10.9
• 이명구 : 자혼 10.17
• 김용욱 : 여혼 10.30
• 황병일 : 여혼 10.30
• 박삼서 : 자혼 11.13

<48회>

◆ 48회 공동회갑연
- 일시 : 11월 27일(토) 18:00
- 장소 : 오페라웨딩홀 신관1층 (대전시청 앞)
- 참석인원 : 부부동반 100명

<49회>

◆ 졸업 40주년 기념행사(사진 상 · 하)
- 일시 : 2010.10.23(토) 17:00-21:00
- 장소 : 만남예식장
- 참석자 156명, 은사님 7명
- 주요행사 : 모교발전기금 조성 1,000만원, 공로패수상(김보환, 이홍근, 박병석, 박성권), 친교의 시간

◆ 송년모임
• 2010 송년행사(서울합동) 12월27일(월) 18:00 서초동 서초로얄프라자
• 2010 송년모임(대전) 12월16일(목) 19:00 동구 비래동 만남웨딩

◆ 애경사
• 천용희 : 장모상 10.1
• 원종세 : 장모상 10.6
• 이상욱 : 여혼 10.9
• 김인수 : 자혼 10.10
• 이병식 : 자혼 10.16
• 송완영 : 여혼 10.17
• 김호중 : 장모상 10.19
• 최병태 : 장모상 10.20
• 송성선 : 여혼 11.14
• 전승환 : 자혼 11.27

<50회>

◆ 추억의 수학여행
- 일시 : 9월 4일~5일
- 장소 : 제주도 한라산 등반
- 98산악회 주최로 50여명 참가

◆ 축하
- 대능등반대회 최다참가기상 수상
- 양승준, 이찬주 동문: 10월24일 춘천마라톤 대회 완주

<51회>

◆ 애경사
• 박종규 : 장인상 10.3
• 채규현 : 부친상 10.9
• 김석현 : 장인상 10.23
• 김종룡 : 모친상 11.13
• 배재문 : 여혼 11.5
• 김양중 : 여혼 12.4

<52회>

◆ 2010연말 송년회행사

• 대전 송년모임
- 일시 : 12월 8일(수) 19시
- 장소 : 행화한정식(☎487-2108, KKL나이트 뒤편)
• 재경 송년모임
- 일시 : 12월 10일(금) 19시
- 장소 : 안동국시(☎533-3546, 지하철2호선 서초역7번 출구)

◆ 축하
• 정철수 :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취임
• 박용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부임

<53회>

◆ 2010연말 송년회행사
- 일시 : 12월 8일(수) 19:00 태화장
- 장소 : 태화장
- 비고 : 부부동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10년 정기국정감사
권선택의원, 한만희행정복합도시청장,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동문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감사 진행 국토해양부 정기국정감사시 권선택 의원은 행정복합도시건설공사예산 3조 3,624억 중 지방업체 계약비율이 20% 6,639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한만희 청장은 지역업체 지정을 충북까지 확대하여 이를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화답하였습니다.

또한 유인상 청장은 4대강문제는 지역 시, 군, 구의 찬성이 대다수이므로 충청남도가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 애경사
• 박희성 : 장인상 10.12
• 육용복 : 모친상 10.20
• 김명재 : 여혼 10.23
• 이현수 : 모친상 10.28
• 김인섭 : 장인상 11.5
• 남종찬 : 부친상 11.6
• 이은구 : 자혼 11.13
• 최재호 : 자혼 11.13
• 김진식 : 여혼 11.13
• 우재환 : 여혼 11.21

<54회>

◆ 54회 모임 안내
• 대전월례회 : 매월 9일 정기모임, 회장 이용희 총무 강대규
• 재경54 산우회 : 홀수달 마지막 일요일, 회장 홍기완 총무 배장환
• 분당대능회(분당모임) : 매월 넷째주 금요일, 회장 신상민 총무 박일배
• 관악회(경기남부모임) : 홀수달 둘째주 목요일, 회장 박세은 총무 김동학
• 강목회(강남지역모임) : 매월 세째주 목요일, 회장 박종복 총무 이정근
• 이수회(강북지역모임) : 매월 둘째주 수요일, 회장 김홍무
• 강서이목회(강서구모임) : 짝수달 둘째주 목요일, 회장 강희찬 총무 유영희

◆ 애경사
• 윤종삼 : 모친상 10.5

• 이근범 : 자혼 10.15
• 노재성 : 자혼 10.23
• 안종옥 : 장모상 11.1
• 안증환 : 여혼 11.6
• 이삼환 : 여혼 11.19
• 박오병 : 자혼 11.21
• 손종암 : 부친상 11.23

<55회>

◆ 대능55가족가을운동회(사진)
- 일시 : 10월 30일(토)
- 장소 : 서울대학교 운동장
- 111명 참석(가족포함)

◆ 축하
• 강영기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취임 10.1
• 정원수 : <가슴이 쿵쿵뛰는 온누리한글 중국어>(박이정 출판사) 출간
• 신일영 : 명동예치과 개명-예쁜사람들 치과그룹(명동, 방배동) 운영(10/15)
• 김응두 : 젤로소윈드 오케스트라 연주회 개최(10/24)
• 이지한 : 교육과학기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승진(11/01)
• 정규형 : 딸 정다영 양 수복한의원 개원, 대전 갈마프라자 3F (T.523-7766)

◆ 애경사
• 정진홍 : 자혼 10.9
• 이길섭 : 모친상 10.8
• 이강승 : 부친상 10.27
• 안중걸 : 부친상 11.3
• 성낙승 : 장모상 11.7
• 권혁승 : 장인상 11.13
• 조원규 : 형님상 11.15

<56회>

◆ 축하
• 김정엽 : 효광원 원장 취임
• 유상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 애경사
• 온기선 : 장인상
• 전양근 : 차녀 소천
• 김성회 : 모친상
• 양무열 : 모친상
• 구본석 : 장모상
• 방종태 : 모친상
• 강전범 : 부친상
• 이문석 : 모친상
• 윤용로 : 부친상
• 이광석 : 여혼
• 한용석 : 부친상
• 이문형 : 장모상

<57회>

◆ 연락처변경
• 신교영 : 010-5456-0417
• 심재수 : 010-6541-7801
• 황광성 : 010-2414-4684

◆ 애경사
• 정두호 : 모친상 9.4
• 정기한 : 부친상 9.5
• 전해윤 : 모친상 9.28
• 장광진 : 부친상 10.6
• 박종식 : 부친상 10.13

◆ 개업
• 박종식 : 에이원애드공장 충남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84

<58회>

◆ 축하
• 한청수 : CAD 관련 전문서적 〈CATIA V5(Lecture Note)〉 출간

◆ 애사
• 홍윤기 : 모친상 9.20
• 홍창석 : 부친상 10.18
• 곽노찬 : 부친상 10.21
• 이호완 : 부친상 10.28
• 송길호 : 장인상 11.12

<59회>

◆ 59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
- 일시 : 10월 9일
- 장소 :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홍보지원금 전달 61회 동창회(회장 권형준)가 모교 자율형 공립고 홍보지원금 1000만원을 총동창회에 위탁했다. 지원금은 61회 동기 이의범, 김성권, 홍성철, 남궁은, 권형준, 김성덕, 이재범, 박창희등 8명이 주도해 모았다.

◆ 59회 졸업 30주년 기념 골프대회
- 일시 : 10월 10일
- 장소 : 여주 캐슬파인 CC

◆ 2010년 11월 월례 모임
- 일시 : 11월 15일(월) 7시
- 장소 : 둔산동 강릉삼교리(구본상 동기 운영: ☎042-485-7892)
- 30주년 행사 뒷담화

◆ 애경사
• 한기훈 : 장인상 9.19
• 송인도 : 모친상 9.22
• 박재인 : 장인상 10.13
• 이정훈 : 부친상 10.23

<60회>

◆ 제3회 60가족음악회(사진)
- 일시 : 11월 20일(토)
- 장소 : 대전 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

◆ 월례회
- 일시 : 11월 20일 토요일
- 장소 : 방아실 순두부와 굴 (☎042-476-9600)
- 비고 : 음악회 이후 월례회 및 뒤풀이

◆ 애경사
• 성낙훈 : 장인상 10.4
• 류승헌 : 부친상 11.8

◆ 공고
60회 졸업 30주년기념수첩 제작용 주소 및 사진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대전 중구 대흥동 422 대전고 동창회관 60회동창회
- 이메일 obdk@daego.kr
- 참고 : 60회 까페 http://cafe.daum.net/daego60gi

<62회>

◆ 축하
• 신유철 : 육군대령 진급

◆ 애경사
• 심상용 : 모친상 10.20
• 권선목 : 부친상 10.21
• 이용배 : 부친상 11.6
• 백광현 : 본인상 11.7

<63회>

◆ 63회 정기모임
- 일시 : 11월 17일 (수) 7시
- 장소 : 황포갈비

◆ 애경사
• 이상묵 : 모친상 11.15

<66회>

◆ 대전고 66회 골능회 정기총회
- 일시 : 11월 4일 12시
- 장소 : 유성CC

◆ 2010년 동문가족 체육대회
- 일시 : 10월 9일 12시
- 장소 : 대전고 운동장

◆ 2010년 정기총회
- 일시 : 2010년 11월 27일
- 장소 : 올댓비베큐 둔산점

◆ 축하
• 박인수 :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
• 이호승 : 건축사 시험 최종합격

◆ 애사
• 길만섭 : 장모상 9.26
• 김장욱 : 장인상 10.2
• 전영우 : 본인상 9.30
• 김용현 : 부친상 10.15

<68회>

◆ 동기모임
• 10월 4일 둔산가마루(대표 이승주)
• 11월 16일 인동어진숯불갈비(대표 한정익)

◆ 68회 2010년송년회
- 일시 : 12월 15일(수) 오후6시30분
- 장소 : 가마루 둔산점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55번지 시청역4가. 042-488-3592

◆ 애경사
• 양진모 : 본인상 10.16
• 이종복 : 부친 칠순연 11.14

<71회>

◆ 임원개선
- 회장 : 배지현, 총무 : 명순영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大 대전고등학교 제63회 동창회

asics (유성점)
대표 박종근(63)
042-825-569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41-3 아식스

(주)모닝팜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대표 박승직(63)
010-5430-49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90-3

PLANT DENTAL CLINIC 플랜트치과 PLANT DENTAL CLINIC
원장 신영철(63)
042-824-227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64-1

차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차상원(6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78
정석그린프라자 404호
031-273-3033

하이키한의원 대한민국 성장크리닉
원장 박승만(63)
02-533-1075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6동 506호

녹원치과의원
원정 강한중(63)
042-485-9494
대전 서구 둔산동 1451번지
(시청역 7번출구)

good people DAEHYUN 대현광고기획
대표 이보행(63)
042-257-5042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40-1 2층

The 맑은눈 안과 The Happy Eye
원장 안승일(63)
042-476-0075
대전 서구 둔산동 949 더맑은눈안과

New Hand NH 새손병원
원장 정재인(63)
042-535-190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75-8

금산진(眞)홍삼
(홍삼액,홍삼정 등)
대표 길필종(63)
041-751-29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9-1

논산제일신경외과
원장 이남영(63)
041-733-8275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5-15

박남규내과의원
원장 박남규(63)
043-283-827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79-3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대전지점
지점장 임인수(63)
042-471-0070
대전 서구 둔산동 1042번지 영남빌딩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승진사업부
사업부장 서영교(63)
042-472-0973
대전 서구 월평동 244번지 우림필유빌딩

샐러드바와 바베큐를 마음껏 즐길수 있는 곳 all that Barbecue Salad & Barbecue
대표 이강욱(63)
042-488-028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026

강남 원 성형외과
대표 장원철(63)
02-556-3400
서울 강남 역삼1동 705-25
강남최고의 눈밑지방 · 주름제거 전문

만나가 차려드리는- 라온출장뷔페
대표 이재호(63)
www.raoon.co.kr
042-825-2001~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52-9

야외·교회 결혼식부터 돌잔치, 회갑연, 상견례, 기업연회등 소중한 모임을 대전 대표 외식기업 '한식당 만나'가 직접 운영하는 '라온출장뷔페'에서 행사진행부터 모든 음식까지 직접 차려드립니다.

IMIZI 이미지 안경원
대표 황인행(63)
042-484-9111
대전 서구 둔산동 959번지 이마트둔산점 3층 안경코너

대청밸리옥천C.C
대표 이용상(63)
043-731-0010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111-2번지

수 이비인후과
원장 송영복(63)
042-527-6223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2-1

대전고등학교 제64회 동창회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 동창회장 김강우 ▣ 재경회장 류 진
▣ 총 무 이창우 ▣ 재경총무 서동환